

正說分	一門	二門		三門		六門	六分	六品
前六品 (전육품) 別顯觀行 (별현관행) 관행을 별도로 드러냄	一味 (일미)	遺妄顯因 (견망현인) 망상을 버리고 원인을 드러냄	相生都泯 是本覺利 (사생도민 시본각리) 상과 생이 모두 사라짐이 본각의 이익	遣相歸本 (견상귀본) 상을 버리고 근본으로 돌아감	觀行始終 (관행시종) 관행의 처음과 끝	觀無相法(관무상법) - 所觀之法(소관지법) 法謂一心如來藏體(법위일심여래장체) 무상법을 관함-관찰되는 법, 법=일심여래장체	明無相觀(명무상관) 무상관을 밝힘	1.無相法品 (무상법품) 解脫菩薩 (해탈보살)
						顯無生行(현무생행)-能觀之行(능관지행) 行謂六行無分別觀(행위육행무분별관) 무생행을 드러냄-관찰하는 행 행=육행무분별관	顯無生行(현무생행) 무생행을 드러냄	2.無生行品 (무생행품) 心王菩薩 (심왕보살)
				從本起行 (종본기행) 근본으로부터 행을 일으킴	教化本末 (교화본말) 교화의 근본과 지말	本覺利品(본각리품)-一心中之生滅門(일심중지생멸문) 본각리품-일심 가운데 생멸문	依本利物(의본리문) 본각에 의지하여 중생을 이롭게 함	3.本覺利品 (본각리품) 無住菩薩 (무주보살)
		顯眞成果 (현진성과) 참됨을 드러내어 결과를 이룸	實際眞空 是如來藏 (실제진공 시여래장) 실제와 진공이 여래장임	雙顯歸起 (쌍현귀기) 돌아감과 일어남을 함께 드러냄	攝因成果 (섭인성과) 원인을 거두어 결과를 이룸	明入實際(명입실제)-一心中之眞如門(일심중지진여문) 실제에 들어감을 밝힘-일심 가운데 진여문	從虛入實(종허입실) 허망으로부터 실제에 들어감	4.入實際品 (입실제품) 大力菩薩 (대력보살)
						明眞性空(명진성공)-雙見眞俗(쌍견진속) 不壞二諦(불괴이제) 진성공을 밝힘-眞俗을 함께 보되 二諦를 무너뜨리지 않음	辨一切行(변일체행) 出眞性空(출진성공) 진성공에서 나옴을 분별함	5.眞性空品 (진성공품) 舍利弗(사리불)
				顯如來藏(현여래장)-遍收諸門(편수제문) 同示一味(동시일미)여래장을 드러냄- 모든 문을 두루 거두어 같이 일미(一味)를 보임	顯無量門(현무량문) 入如來藏(입여래장) 여래장에 들어감을 드러냄	6.如來藏品 (여래장품) 梵行長者 (범행장자)		
總持品 (총지품) 總遣疑情 (총견의정) 의심을총괄 하여 버림							7.總持品 (총지품) 地藏菩薩 (지장보살)	